

Malaysia's Maritime Industries Report (August 2023)

아래 내용은 조합원의 참고를 위한 국문 요약본이며,

정확한 내용은 영문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해양산업 기사

Global

A)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3국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의 해운 안전 논의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운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미팅을 함.
-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은 높은 교역량, 장거리,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세계에서 중요한 해운 경로 중 하나로서 기능을 해옴.
- SOMS의 해상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개발에 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함.

B)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태국, 중국의 새 표준지도(영토 및 영해 기준)를 거절하는데 인도와 동참.

- 중국 천연자원부, 8월 28일 자국 영토 및 영해의 신규 기준이 반영된 '표준 지도' 발행
- 인도, 자국 영토인 Arunachal Pradesh 와 Aksai Chin 지역을 새로운 표준지도에 포함시킨 중국의 영토/영해 방침에 항의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또한, 중국의 새로운 표준지도 설정이 자국의 영해 권리를 위반하는 조치임을 공표하며 거부키로 함
- 중국은 새 지도는 내부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변론하였지만, 동남아 지역 내 국가들은 새 표준지도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비판

Local

A) 말레이시아 선주협회,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되도록 지원 강화해야"

- 말레이시아 선주협회 (MASA) 의장, “말레이시아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요한 기둥이 되는 미래를 그림”
- 최신 국제수지 데이터 상,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부문이 손실을 내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서비스 수출보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을 가리킴
- 운송 서비스가 RM 330억 적자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해운사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 및 금융적 지원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제안

B) 말레이시아 교통부, 더 많은 전기 페리 도입 희망

- 말레이시아 교통부, 기업들의 운송 부문에 대한 친환경 선박 도입 및 투자 환영
- 교통부 장관, “더 많은 기업 및 단체들이 친환경 운송수단을 생산하길 희망”
- 전기 운송수단 제조업체 Yinson, 민간 전기 페리 건조 중
- 교통부, Penang, Langkawi, Johor, Sabah, Sarawak 같은 지역에 더 많은 해상 대중교통 도입 추구하며, 핵심은 더 많은 자본과 투자

C) 말레이시아, 국가 주권 보호하기 위해 해군과 해양경비 강화 방안 고려해야

- 국제 방위 안전 전문가, “말레이시아는 반드시 해군, 해안경비, 공군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말레이시아 정부, Sarawak 및 Sabah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를 위해 해군(RMN), 해상경찰(MMEA), 공군(RMAF)의 신규 국방 자산 도입을 통한 전력 강화 및 현대화를 우선 고려해야함”
- “해당 역량 강화는 핵심 국익 방어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

1) 경제

A) 페트로나스, 에너지 가격 하락에 수익 감소

- 페트로나스, 메이저 석유회사 셰브론, 엑슨모빌, 웰과 마찬가지로 2분기 이익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국제 에너지 가격, 1년 6개월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최고점을 갱신하였지만, 최근 추세는 최고점 대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페트로나스 CEO,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금융기관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페트로나스는 자본 전략을 다시 짜고 성장을 위한 현금 보유고를 구축해야 함”

B) MISC, 2분기 RM 4억5300만 링깃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

- MISC Bhd, 2023년 6월 30일 4억5290만 링깃 순이익 기록하였으며, 이는 23년 2분기 비유동자산의 가치 하락 추세가 줄어들에 따라 1년전 1910만 링깃 순손실대비 증가한 수치임.
- MISC, 석유 및 제품 운반 운임비의 높은 마진률과 해양 사업 부문에서의 높은 이익으로 영업이익이 4609만 링깃에서 5313만 링깃으로 15.3% 증가함
- MISC, 두개의 부유식 저장 설비 (Floating Storage Unit) 운영 호조 및 용선비 선불 수령 등으로 영업 활동에서 높은 현금 흐름을 기록함.

C)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주요 가스 파이프선 일부 폐쇄 및 MLNG Dua에 직공급

- 페트로나스, LNG Complex 내 4곳의 가스전 중 하나인 LNG-Dua에서 불가항력이 발생함에 따라, Sabah Sawarawk 가스 파이프(SSGP) 영구 폐쇄 예정
- SSGP는 페트로나스의 사바-사로왁 통합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512km, 직경 36인치 파이프라인은 하루 7억 5천만 큐빅 피트의 가스 용량으로 Sabah의 가스전과 Bintulu의 MLNG 수출 단지를 연결함
- Lawas 인근 파이프라인의 일부를 폐쇄하는 결정은 지질 유행성 및 토양 이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심층 검토 후에 내려짐.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공급 가스가 MLNG Dua로 곧 다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에도 sabah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D) PTP, 운송과정에 전반에 디지털 기술 사용

- Port of Tanjung pelepas (PTP)에서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 중
- PT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 중 하나로, 연간 1250만 TEU의 용량을 가짐
- PTP는 향후 5년간 30억 링깃을 들여 자동화, 디지털화 및 기타 항구 기능을 포함하여 현재 터미널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
- 시스템은 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며 항구내 컨테이너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해운 환경의 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기술 또한 사용

2) 투자 및 파트너십

A) Boustead의 BNS 지분, 1 링겏에 매각

- BHIC(Boustead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Bhd), BNS(Boustead Naval shipyard) 지분 전량을 매각
- 판매 비용이 1링겏으로 발표되었지만 Ocrean Sunshine Bhd(OSB)가 BNS의 부채를 인수하고 BHIC와 그 자회사들에게 4억 링겏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훨씬 더 높음
- BHIC가 들고 있던 20.77%, 27000만 주의 처분은 정부가 연안전투함(LCS) 건조를 확실히 하고자 BNS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3) 프로젝트 개발

A)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MMEA) 첫 해양초계함(OPV), 연말까지 인도예정

- MMEA의 첫 순찰선박이 올해말까지 서비스에 인도될 예정임
- OPV1은 원래 인도 예정이었던 작년 8월에서 1년간 늦춰짐
- 정부는 신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조선소에 대출을 연장함

B) 페르다나 석유, 3820만 링겏 상당 선박용선계약 따냄

- 페르다나 석유는 Petronas Carigali Sdn Bhd로부터 3대의 앵커 핸들링 예인 및 공급(AHTS) 선박을 공급하기 위해 3820만 링겏 상당의 작업 주문을 받음

C) 해상경찰요격기 입찰

- 내무부, 해상 경찰을 위해 5척의 고속 순찰정(FPC) 공급 입찰 발표하였으며, 입찰은 8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 45일임
- 입찰은 24년 6월까지 유효하며, FPC 5척을 제외하고 PA급 경비정 10척에 대한 수리 입찰도 공표함(입찰기한, 8월14일 ~ 9월29일)

D) 연안전투함(LCS) 다음달 재가동 작업

- LCS 프로젝트 작업은 23년 9월에 시작 예정. 5월 26일 6차 부가계약 체결 이후 업무 재개가 시작 중임
- 5척 LCS 중 첫번째 Maharaja Lela는 26년말까지 인도 예정